

아기 호랑이들 ‘특별한 하루’



KIA 타이거즈의 2020신인 선수들이 15일 챔피언스필드 실내연습장에서 팬북에 들어갈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미래 스타를 꿈꾸는 KIA 타이거즈의 ‘아기 호랑이’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 KIA 신인 선수들이 15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2020시즌 프로필 촬영을 했다. 지난 10일 함평챔피언스필드에 소집돼 프로 데뷔 준비를 시작한 선수들은 이날 잠시 훈련을 멈추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포즈를 취했다. 아직은 안방이 된 챔피언스필드도 함께 하게 된 선배-구단 관계자들도 여색하지만, ‘요즘 아이들’답게 카메라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면서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프로 선수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신인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촬영을 즐기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신인 선수 중 ‘만행’인 영동대 출신 외야수 이인환은 “기분이 좋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며 꿈꾸던 프로 선수가 되어 자신을 알릴 프로필 사진 촬영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선배-코치들의 표정도 밝았다. 개인 훈련을 위해 경기장에 나온 13년 차 나지

KIA 2020 시즌 프로필 촬영 유니폼 입고 프로선수로 첫 걸음 이인환 “세상 다 가진 기분”
나지완 “나도 저런 시절 있었지”
선배·코치들도 찾아 함박웃음

완은 어린 후배들을 보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벌써 10년이 넘었다”며 웃었다. 올 시즌 빨간 유니폼을 입고 새로 출발하는 진갑용 배터리 코치도 단체 촬영을 위해 한 곳에 모인 신인들을 보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올해 신인들이야”며 웃은 진 코치는 “잘 부탁한다”며 팀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선전을 당부했다. 안치홍의 이적으로 ‘격전지’가 된 내야에서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유망주 홍종표와 박민은 신인

다운 패기로 2020시즌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강릉고 출신의 홍종표는 “KIA에서 야구 잘할 일만 남았다. 야구장을 휘젓는 선수가 되겠다”고 당찬 소감을 밝혔다. 2020신인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불렸던 야탑고 출신의 내야수 박민도 “열심히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소감을 이야기했다. 지난 10일부터 팀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박민은 “아마추어는 훈련량으로 승부를 했는데 프로이다 보니까 양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배우는 게 많은 것 같다”며 “기술적으로 세밀하게 배우는 것도 많다. 수비와 타격, 세심한 부분까지 잘 보완하고 싶다. 뭉치는 않지만 안정성, 꾸준함으로 어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프로필 촬영을 하며 하루를 보낸 ‘루키’들은 16일에는 대전으로 간다. 이들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2020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소양 교육, 반도핑 교육, 스포츠 윤리 교육 등을 받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역’ 노승열 PGA 복귀

2년3개월만에 내일 개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출전

17일(한국 시간)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회에는 반가운 이름이 눈에 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노승열(29)이 2년 3개월 만에 PGA 투어 복귀전을 치른다. 2017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CJ컵 나인브리지 대회를 끝으로 군 복무에 들어갔던 노승열은 작년 가을 국내에서 열린 대회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2014년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한 노승열이 미국 캘리포니아 라킨타에서 열리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복귀하자 PGA 투어도 관심을 가졌다. PGA 투어 홈페이지는 “노승열이 대회에 나서지 못하는 동안 페이드 구질로 바꿨으며, 공백에도 대회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노승열은 한국시간 17일 오전 2시 40분 라킨타 컨트리클럽 10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노승열은 PGA 투어 국내 홍보대행사인 스포티즌을 통해 “이번 주 목표는 실전 감각을 잡는 것”이라며 “연습 때 샷 감각은 괜찮은 편이니 코스 세팅에 빨리 적응해야 그만큼 긴장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회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프로암 형식으로 3라운드를 진행하고 컷을 통과한 선수들이 4라운드에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열린다. 노승열은 “이번 대회는 프로와 함께 아마추어 골퍼가 팀을 이뤄 함께 경기하는 방식이라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다른 대회보다는 덜하다”며 “복귀전으로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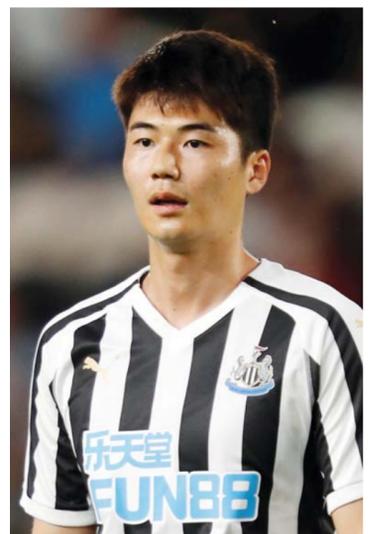


2018-2019시즌 PGA 투어 신인왕에 오른 임성재(22)는 대회를 앞두고 PGA 투어가 선정한 ‘파워랭킹’ 1위에 올랐다. PGA 투어는 임성재가 작년 이 대회에서 공동 12위를 했고, 최근 42경기에서 21차례나 25위 안에 든 것을 높이 평가했다. 임성재는 한국시간 17일 오전 3시 10분 라킨타 컨트리클럽 1번홀에서 출발한다. /연합뉴스

기성용, 이적 언급

매치데이 프로그램 표지 장식…“뉴캐슬 떠나도 자랑스러울 것” 인터뷰

새 등지를 찾고 있는 기성용(31)이 뉴캐슬 홈팬들에게도 팀을 떠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성용은 15일 홈 경기장인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파크에서 열린 로치데일(3부리그)과의 2019-2020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3라운드(64강) 재경기를 앞두고 구단이 발행한 매치데이 프로그램의 표지를 장식했다. 이번 시즌 뉴캐슬에서 입지가 좁아진 기성용은 4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이후 경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4일 로치데일과의 3라운드 때 동료의 부상으로 모처럼 교체 투입돼 후반 8분부터 뛰었다. 이런 가운데 재경기에서 매치데이 프로그램 표지에 등장하고 인터뷰를 통해 팬들에게 메시지도 남긴 것이다. 인터뷰에서 기성용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적 루머 등 여러 추측이 나오게 마련이다. 내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누구의 탓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팬과 서포터 앞에서 뭉개기했다. 열정적인 이들 앞에서 경기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다”면서 “다른 팀에 가게 되더라도 자랑스러울 것”이라며 이적을 암시했다. 기성용은 “뉴캐슬은 내게 ‘빅클럽’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지만, 모든 팬과 클럽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성용은 정작 이 경기 출전 명단에는



들지 못했다. 4일 로치데일과 1-1로 비겨 이날 재경기에 나선 뉴캐슬은 전반 17분 상대 선수의 자책골을 시작으로 4골을 몰아넣으며 4-1로 대승,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뉴캐슬은 25일 3부리그 소속의 옥스퍼드 유나이티드와 홈에서 4라운드를 치른다. /연합뉴스

‘묵언’ 손흥민 ... 3경기 연속 ‘노 골’

토트넘, FA컵 64강전 미들즈브러에 2-1 승... 25일 사우샘프턴과 32강전

손흥민이 교체 투입돼 30여분간 활약한 토트넘 홉스퍼가 미들즈브러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재경기에서 승리하며 32강 고지를 밟았다. 토트넘은 1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FA컵 64강전 재경기에서 챔피언십(2부 리그)의 미들즈브러를 2-1로 제압했다. 토트넘은 지난 5일 열린 미들즈브러와의 첫 경기에서 1-1 무승부에 그쳐 이날 재경기를 치르게 됐다. 토트넘은 25일 프리미어리그 12위 사우샘프턴과 원정에서 32강전을 치른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손흥민(사진)은 후반 16분 교체 투입돼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하고 시즌 11호 골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첫 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주며 고전한 토트넘이었지만 이날은 경기 시작 2분만에 득점하며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토트넘은 상대 골키퍼 토마스 메지아스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선제골로 연결했다. 메지아스가 공을 걷어낸다는 것이 지오바니 로첼소의 발 앞으로 향했고, 로첼소는 골지역 정면에서 원발 슈팅을 골대 왼쪽 구석에 찔었다. 추가골도 전반 15분만에 나왔다. 에릭 라멜라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뒤 수비수 2명을 제치며 골지역 정면까지 돌파해 들어가 원발 슈팅으로 2-0을 만들었다.

미들즈브러는 후반 38분 조지 사발이 골대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추격골을 넣었지만 더는 득점하지 못했다. 토트넘의 조제 모리뉴 감독은 후반 16분 승부를 굳히기 위한 첫 교체 카드로 손흥민을 선택했다. 손흥민은 후반 34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원발 슈트를 날렸으나 공이 발에 덜 감겨 골대를 많이 벗어났다. 후반 40분에는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파울을 유도해 프리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슈팅은 무위로 그쳤다. 손흥민은 후반 46분 절호의 득점 찬스를 맞았다. 자켓 탕탕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에 있던 손흥민은 텅 빈 골대를 향해 몸을 날리며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이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아 시즌 11호 득점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